

# 오락가락 관세에 주가·환율 널뛰기... 기업 '환 리스크' 비상

불확실성 커지며 시장 혼란 가중  
美-中 갈등 여전... 원화약세 전망  
“韓 경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나는 90일간의 유예와 이 기간에는 10%의 (기본) 상호관세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날 0시 1분 상호관세가 발효된지 약 13시간 만이다.

“자고 나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덕’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환과 증시는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가뜰이나 기초체력이 약해진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할 전망이다. 환율이 크게 출렁이면서 수출기업들이 ‘환 리스크’에 빠지게 될 위험성도 커졌다.



스피가 전 거래일(2293.70)보다 151.36포인트(6.6%) 상승한 2445.06에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43.39)보다 38.4포인트(5.97%) 오른 681.79,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84.1원)보다 27.7원 내린 1456.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트럼프 '관세 번덕'은 '금융시장 번덕'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발언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는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증가(달러당 1484.1원)보다 27.7원 오른(환율은 하락) 1456.4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만에 시장 상황이 급변한 탓이다. 전날 원화 환율은 한때 1487원대를 찍었다. 관세전쟁 공포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던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의 최저치(원화 가치 하락)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사라

진 건 아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원화와 같이 글로벌 교역 규모와 통화 가치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통화는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 환경 악화 전망에 가치 절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은 원화 가치 절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짚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 역시 “미·중 관세전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원화는 달러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151.36포인트

(6.60%) 급등한 2445.06에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전날 2293.70까지 밀려났었다. 하루 만에 나뭇잎을 회복한 셈이다. ◆미·중 환율전쟁, '환율' 청구서 날아올라 기업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 리스크' 확산에 주목한다. 미·중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불통이 한국 외환시장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자, 위안화에

동조하는 원화 값은 급등락하고 있다. 환율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수출단가는 0.04% 오르고, 수출물량은 0.01% 감소해 수출금액은 0.03% 증가에 그친다. 반면 수입금액은 3.6%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환율 상승은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불러온다. 투자한 돈을 달러로 바꿔 회수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통은 치명적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한국경제는 휘둘리고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통화전쟁' 발발은 두 나라와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게다가 위안화 가치의 급등락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거 이탈을 몰고 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초 위안화 절하가 잇따르자 외국인 자금 이탈과 그에 따른 증시 폭락 현상이 일어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비트코인, 하루만에 8.5% '썰렁'... 금값 3000달러 상회

(온스당)

트럼프, 채권시장 불안감 언급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투심 영향 '위험자산'인 가상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급등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6개국에 적용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를 병행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킨 영향으로 금값도 함께 상승했다. 10일 가상자산시황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정오께 1BTC당 약 8만2200달러(1억1980만원)에 거래

됐다. 비트코인이 장중 7만5000달러까지 내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던 전일과 비교해 8.5% 급등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상승률은 10%를 웃돌았다. 이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14.2% 상승했고, 시총 3위인 리플(XRP)도 13.6% 상승했다. 시총 4위인 바이낸스(BNB)와 5위인 솔라나(SOL)는 각각 6%와 12.4% 상승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조치를 유예하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을 언급한 것 또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데 일조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강세다.

지난 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증가는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079.40달러를 기록했다. 전일보다 89.20달러(3.0%) 급등했다. 상호관세 도입을 앞두고 유동성 확보·차익 실현을 이유로 온스당 3000달러 아래로 내렸던 금값이 다시 3000달러를 넘겼다. 금 가격 상승은 트럼프가 상호관세의 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1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초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는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과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도, 용납될 수도 없다

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회사 B2PRIME의 알렉스 체파예프 수석전략책임자는 “현재의 높은 지정학적 긴장감과 그에 따른 경제 불안정은 금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면서 “다가올 경제 침체에 대한 논의도 금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TD증권의 바트 멜렉 상품 전략 책임자는 “금은 궁극적으로 불안정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여겨진다”면서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의)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권한대행 “모든 협상 진전 보일 것”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상당히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국제유가 급락... 정유업체, 업황 위기대응 '구슬땀'

에쓰오일·SK이노 대규모 투자 단행 HD현대오일뱅크 재무안정성 확보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관세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원화 가치가 속락하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체들의 위기대응 행보가 잇달고 있다. 수요 사이클을 고려해 유가 하락기를 오히려 투자 확대의 기회로 삼는 곳이 있는 한편 일부 기업은 재무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는 등 선택이 제각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브

렌트유는 배럴당 61.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중국 정부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84%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58.4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국면 이후 처음으로 60달러선이 붕괴된 것이다. 여기에 고통을 기조까지 맞물려 정유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황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먼저 에쓰오일은 국내 석화 업계 역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원을 투자하는 사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에쓰오일은 에틸렌 180만톤, 프로필렌 77만톤, 부타디엔 20만톤, 벤젠 28만톤 등의 기초유분을 생산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콤플렉스 내 자가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LNG를 직접 도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전력 비용을 줄이고 지난해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과감한 투

자보다는 재무 안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질유분해 설비인 HPC에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며 차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대규모 투자 이후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만큼 정유 수요와 공급도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고 평가손실 측면에서 정유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향후 수요 회복과 함께 유가 및 정제마진이 반등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